

## 세계 사료곡물 시장의 동향과 전망

본고는 지난 6월 26일 양돈회관 5층에서 본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양돈의 향후 진로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차장이 "세계 사료곡물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1. 국제사료곡물수급 및 가격전망

미농무성의 CROP REPORT를 중심으로 95/96('95년9월1일~'96년8월31일)의 수급동향과 '96/'97년도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곡가상승 행진이 지속되던 지난 3월에 미농무성(USDA)이 발표한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95/'96년도 세계사료곡물생산량은 7억7,691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9.7%가량 감소하였다.

소비량은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줄은 8억2,604만톤으로 예상되며, 재고량은 8,445만톤으로 지난 '94/'95년도에 비해 약 36% 떨어진 상태이다. 이중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은 2억942만톤으로 26.5%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1억8,051만톤으로 13.2%줄고, 재고량은 약 1,542만톤으로 지난 94/95년의 4,534만톤에 비해 66.0% 감소함으로써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사료곡물생산량이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은 지난해 미국의

기상여건 악화와 함께 지난 수년간 호주, 남미지역등의 일기 불순으로 인해 사료곡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의 장기적인 곡가 하락 및 안정으로 인해 곡물수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농업 경작 한계지에 대한 개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신곡파종과 함께 96/97년도의 수급상황이 처음으로 전망되는 5월달 미농무성 CROP REPORT를 보면 96/97년도 세계사료곡물 수급상황은 95/96년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기초재고량이 8,252만톤으로 사상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생산량은 8억7,688만톤으로 지난해의 7억8,742만톤에 비해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량은 8억6,194만톤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할 전망이다이며, 기말재고는 9,746만톤으로 95/96년의 8,252만톤의 비해 18.1% 증가함으로써 전년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6/97년의 기말재고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차장)

량이 9,746만톤으로 재고율은 10.1%로 과거 10년간의 평균재고수준인 20.4%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수준인 18%에도 못미치고 있다.

향후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세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강세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금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11.3% 증가한 8억7,68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량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에 따라 재고율은 여전히 10%수준의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이 그동안 사료곡물 수출국에서 근래들어 산업경제 발전과 함께 국내소비량 증가 현상에 따라 옥수수, 대두, 쌀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렸고, 오히려 곡물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곡물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상운임은 지난 10여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95년 이후 세계경기의 호전 및 건화물 운송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난 수년동안 신조선 건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을 보여 최근 파나막스(55,000톤)급 PNW선임이 14불, GULF는

24불로 '92년의 10불, 20불대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난해 WTO 출범이후 주요수출국들의 곡물수출국들의 곡물내륙 수송시 그동안 지불되었던 보조금을 철폐함에 따라 곡물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지난해 주요곡물 생산국들의 흉작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세계수요량이 미국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브라질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대두생산지역에 그동안 지속되는 고온건조 기후로 대두감산이 우려되었다.

이와같은 상승요인에 반하여 금년도 상반기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을 되찾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약세요인으로는

첫째, 지난해 이후 세계사료곡물가격 및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생산국들이 곡물과중면적을 늘리고 있다.

둘째, 현재 대기수요상태에 놓여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수입국들의 원료구매가 일단락될 경우 당분간은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금년도 미국의 농업법안 개정에 따라 미정부가 농업의 보조금 삭감원칙하에 작부를 자유화시킴으로서 미국의 옥수수 과중면적이 약 13%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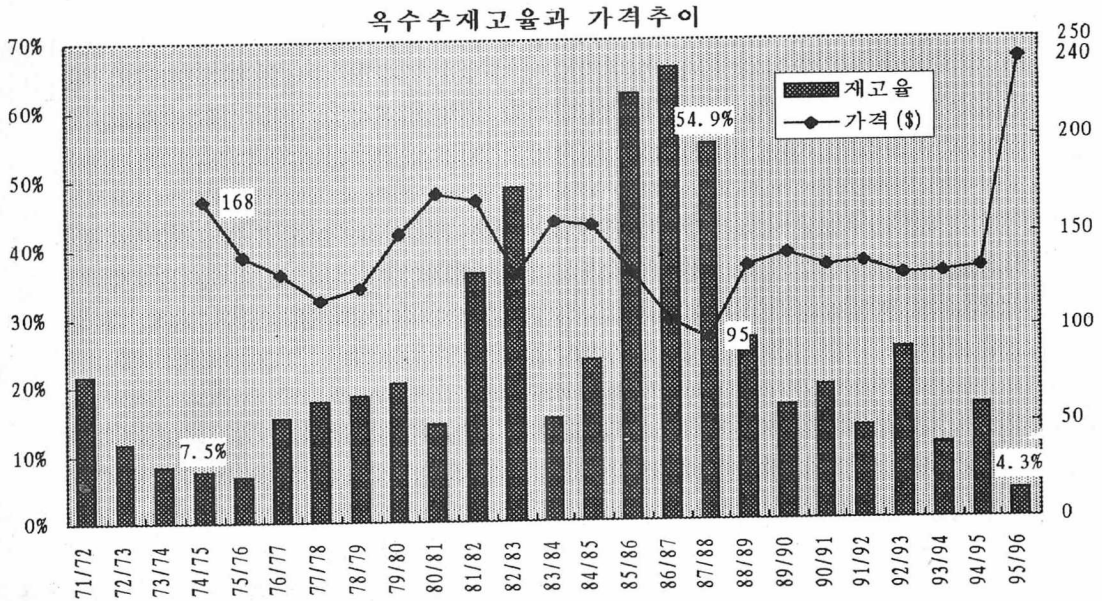
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요변동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세계사료곡물 시장은 약세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적인 강세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도 과중된 옥수수나 사료곡물들의 출하시점인 금년 11월이후에는 신곡출하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 및 재고율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가격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5월 30일 현재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7월물이 부셀당 4.7275불대로 수입가격은 C&F톤당 225불 수준인데 반하여 12월물 가격은 부셀당 3.4750불로 수입가격이 약 185불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산 옥수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과중이 겨우 끝난 단계로서 앞으로 기후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두 단계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즉, 수분단계(Pollination Stage)와 수확이전 단계인 Dough-Stage와 Dent-Stage로 이 단계에서 비가 적게오거나 서리가 내리게되면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반대로 소맥의 경우 기후조건이 불량하여 제대로 알곡이 형성되지 않거나 단백질 함량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사료곡물쪽으로 이용될



〈그림 1〉 미국산 옥수수가격과 재고비율의 관계

- 주) 1. '74/75 각계급상승(U\$4/부셀)  
 -'73. 5월 구소련의 갑작스런 수백만톤의 미산곡류구매  
 -'74년 가뭄, 1차 오일쇼크  
 2. '79/80년 소련의 대량구매 및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3. '87/88년 가격폭락-미국의 '84년이후 연속 생산량증가 및 세계각국의 농업분야 투자 증가에 의한 재고급증  
 4. '88/89년 미국내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5. '95/96년 가격급등  
 -미국 생산량 격감, 중국의 수출증대 및 수입국 전환, 동남아 수요감세지속-재고부족

사료용소맥(Feed Wheat)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

결국 향후 사료곡물의 가격은 구곡의 경우 재고부족과 수입수요의 증가등으로 강세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기후이변이 없이 미산옥수수의 생산증가와 재고수준이 향상될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수수 가격은 재고수준의 향상에 따라 과거 74/75년, 79/80년, 87/88년이후

경험했듯이 가격안정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2. 고곡가 시대의 대응책

곡가급등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의 축산물 및 식료품 가격의 급등은 물론 주요수입국인 한국, 일본등의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배합사료 판

매안정기금제도를 두어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이 국내 사료업체와 축산업계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있어 국제곡물가격 하락시에는 양축가들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금년도 한차례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통해 어느정도 인상요인을 흡수하였으나 '96년도 하반기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고가구매가 불가피했으므로 벌써부터 하반기 사료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곡물가격에 상승하였어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폭의 배합사료 가격조정 및 내부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해 나갔으나 이제는 원료가격이 전년대비 약 60~70%씩 상승하는 현실에서 사료회사들도 원가절감만 가지고 사료가격 인상압박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사상유례없는 곡가폭등에 직면하여 최근 이에대한 대응노력이 정부는 물론 업계와 학계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일시에 공급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국내 생산을 통해 자급율을 높여나간다 해도 아직까지도 외국의 사료원료가격의 3~4배되는 원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곡가과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식량에 대한 자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차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사료용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되어왔고, 이에따라 수입선의 다변화, 수입곡종의 다양화를 통한 공급자 독점시장에 따른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상황과 같이 대체곡물이 없고, 오히려 여타수입국들의 가격이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시카고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와 현지개발수입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선물거래는 현재 많은 국내사료회사나 곡물수입회사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의 속성상 일부분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현지개발수입은 과거 일본의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부나마 사료가격 인상을 완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규모 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영세율을 전양축농가에 확대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전양축농가를 지원·장려해주고 지금에 와서 중소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원료의 관세 또한 일본과 같이 영세로 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사료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료용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 확대적용등을 모두 들어준다 하더라도 배합사료에 미치는 원가인상요인을 모두 상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정책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가격상승폭을 완하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축가들도 이와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은 이제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생산비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축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축산조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새로운 생산비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양축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은 스스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아직 지분을 고치기도 전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축산업계에는 새로운 원가상승국면에 대비한 감량경영과 축산물가격의 회복을 통해 소나기를 피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본다.